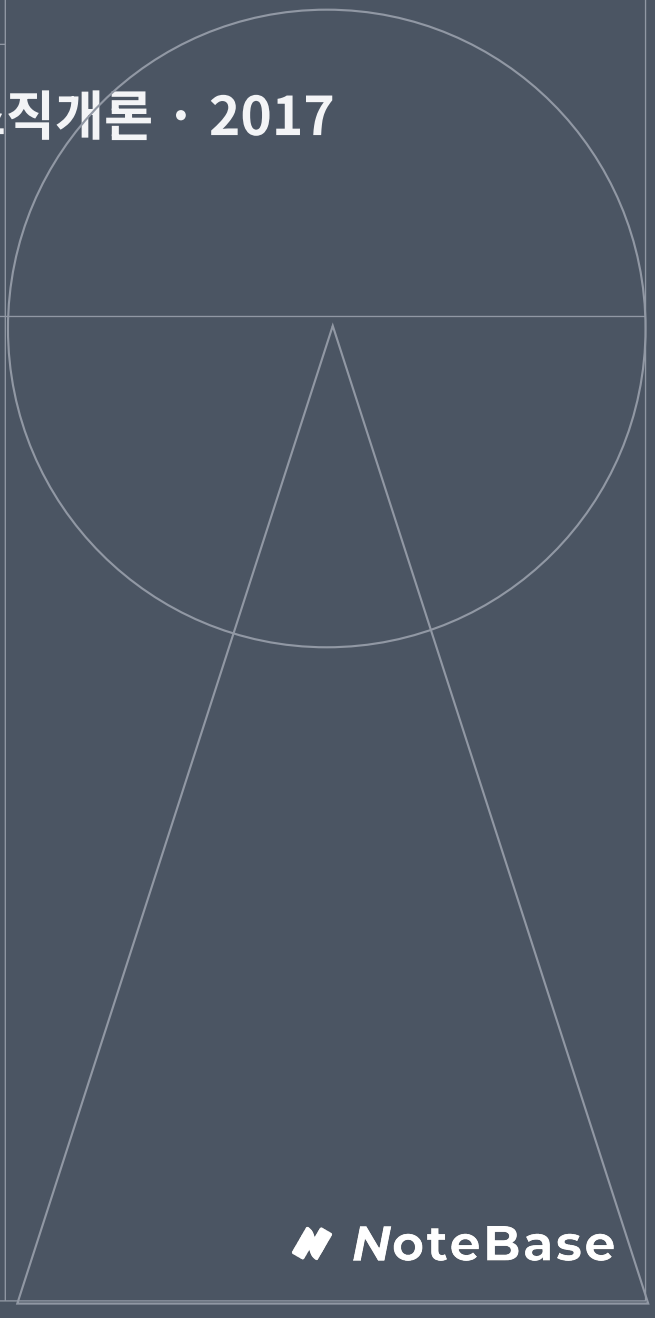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자료조직개론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 자료조직개론 · 2017

공무원/서울시/9급 · 자료조직개론 · 2017

문 1.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에서 새로이 사용한 용어만 모아 놓은 것은?

① 삽화, 본표제, 구득조건사항

② 접근점, 책임표시, 특정자료종별

③ 삽도, 대등표제, 저자표시

④ 삽도, 표제관련정보, 구득조건사항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KCR 제4판에서는 '표목'을 **접근점**, '저자표시'를 **책임표시**로 바꾸었다. 자료의 구체적 종류를 나타내는 **특정자료종별**도 제4판에서 새로 사용한 용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삽화'와 '본표제'는 제4판에서 새로 사용한 용어이지만, '구득조건사항'은 이전 규칙의 용어이다. 제4판에서는 이를 **입수조건사항**으로 바꾸었다. 삽화는 이전의 '삽도'에, 본표제는 '본서명'에 대응한다.

② O: 세 용어 모두 제4판에서 새로 사용하였다. **표목 → 접근점, 저자표시 → 책임표시**로 용어가 바뀌었다. 접근점은 목록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단서이고, 책임표시는 자료의 지적·예술적 내용에 책임을 지는 개인이나 단체 및 그 역할을 나타낸다. 특정자료종별은 자료의 구체적 종류를 나타내는 용어로, 제4판의 형태사항에는 '특정자료종별과 자료의 수량'이 사용된다.

③ X: '대등표제'는 이전의 '대등서명'을 바꾼 용어이지만, '삽도'와 '저자표시'는 이전 규칙의 용어이다. 제4판 용어로 고치면 각각 **삽화와 책임표시**가 된다.

④ X: '표제관련정보'는 이전의 '부서명'과 '잡제'에 대응하는 제4판 용어이다. 그러나 '삽도'와 '구득조건사항'은 이전 규칙의 용어이므로, 각각 **삽화와 입수조건사항**으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2. 다음 중 국제십진분류법(UDC)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류 기호의 일반적인 조합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관점 - 시대 - 지리 - 형식 - 언어
② 언어 - 관점 - 지리 - 시대 - 형식
③ 관점 - 지리 - 시대 - 형식 - 언어
④ 지리 - 시대 - 관점 - 언어 - 형식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UDC의 일반적인 조합에서는 **주제의 내용과 범위를 한정하는 요소**를 먼저 놓고, 자료의 형식과 언어를 뒤에 붙인다. 지리는 시대보다 앞서며, 언어는 형식 다음에 놓인다.

올바른 순서

관점 → 지리 → 시대 → 형식 → 언어

관점: 주제를 어떤 측면에서 다루는지를 나타낸다. 이 문항에 제시된 보조 요소 중에서는 **주제에 접근하는 측면**을 먼저 표시한다.

지리: 내용의 대상이 되는 국가나 지역 등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 관점 뒤에 붙여 주제를 지역적으로 한정하며, 일반적인 조합에서는 **시대보다 앞에** 놓는다.

시대: 다루는 대상의 시기나 기간 등 시간적 범위를 나타낸다. 지리 다음에 놓아 내용의 시간적 범위를 덧붙인다. 관점·지리·시대는 모두 주제 내용과 관련된 한정 요소이다.

형식: 자료가 어떤 형식으로 제시되는지를 나타낸다. 주제 내용의 한정 요소를 붙인 뒤, **내용을 제시하는 형식**을 표시한다.

언어: 자료가 어떤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조합에서는 형식 다음에 놓으며, 여기서 언어는 연구 대상인 언어 자체가 아니라 **자료를 표현한 언어**를 뜻한다.

NoteBase

문 4. 다음 중 듀이십진분류법(DDC) 제23판의 보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자료의 주제가 본표에서 독자적인 분류기호를 가지지 못하거나 포함주의 형태인 경우, T1과 조합할 수 없다.
ㄴ. 본표에 T2를 조합하도록 지시하는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지역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T1의 '-09'를 수반하여 전개할 수 있다.
ㄷ. T3은 문학류(800) 전체, 예술류(700)의 일부와 조합할 수 있다.
ㄹ. T4는 언어류(400)에만 조합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T2의 지역기호는 본표의 직접 조합 지시가 없어도 **T1의 '-09'를 거쳐** 붙일 수 있다. T3은 문학을 세분하는 데 쓰이며, **예술류의 일부에도** 조합 지시에 따라 적용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T1은 사전·연속간행물·지역적 취급 등 여러 주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구분표이다. 다만 자료가 해당 분류기호의 주제 전체 또는 그에 준하는 범위를 다루어야 적용할 수 있다. 독자적인 기호 없이 더 넓은 주제 아래에 포함된 좁은 주제나 포함주기에 제시된 주제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T1을 덧붙일 수 없다**.

ㄴ. O: T2는 지역·역사시대·인물 등을 나타내는 보조표이다. 본표 기호에 T2의 지역기호를 직접 붙이려면 조합 지시가 필요하다. 직접 조합 지시가 없더라도 지역적 취급이 필요하면, 별도의 금지나 제한이 없는 한 **본표 기호 → T1의 '-09' → T2의 지역기호** 순으로 전개할 수 있다. 이때도 T1의 적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ㄷ. O: T3은 예술·개별 문학·특정 문학형식의 세분에 사용하는 보조표이다. T3A는 개별 저작가의 작품과 그에 관한 자료, T3B는 복수 저작가의 작품과 그에 관한 자료를 세분하며, T3C는 문학의 특성·주제 등을 더 구체화한다. 특히 T3C는 **700.4와 791.4 등 예술류의 일부에도** 지시에 따라 적용된다. 따라서 T3의 적용 범위는 문학류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실제 조합은 해당 본표와 보조표의 지시를 따른다.

ㄹ. O: T4는 개별 언어 및 어족을 세분하는 보조표로, 사전·문법 등 언어 연구의 측면을 구분한다. **언어류의 420–490에서 지정된 언어나 어족의 기호 뒤에** 조합 지시에 따라 붙인다. 문학작품의 형식을 구분하는 T3과 달리 언어 자체를 연구한 자료를 세분하는 데 사용한다.

ㄱ·ㄴ·ㄷ·ㄹ이 모두 옳으므로 네 보기를 모두 포함한 ④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5.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은 특정 항목에 분류되는 자료가 많을 경우를 대비하여, 주제의 자모순으로 저작을 세분할 수 있는 별법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별법이 적용된 항목이 아닌 것은?

① 004.12 대형컴퓨터

② 004.66 컴퓨터바이러스

③ 005.133 프로그래밍언어

④ 005.44 컴퓨터운영체제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004.12 대형컴퓨터에는 **주제의 자모순으로 세분하는 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별법은 컴퓨터 관련 항목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라, 해당 항목에서 허용한 경우에 선택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이 문항의 별법은 한 분류항목에 자료가 많이 모일 때, 그 안의 구체적인 주제명을 자모순으로 구분하여 더 세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저자명의 순서로 자료를 구별하는 것과는 구분하며,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항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O/X는 각 항목이 이 별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① X: 004.12는 대형컴퓨터를 분류하는 항목이지만, **자모순 세분 별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대형컴퓨터 자료가 많더라도 이 항목에 해당 별법이 허용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분류기호와 주제의 연결이 아니라 별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이다.

② O: 004.66 컴퓨터바이러스에는 자모순 세분 별법이 적용된다. 이 항목에 자료가 많을 때 **개별 바이러스의 명칭**을 기준으로 자모순 세분을 할 수 있다.

③ O: 005.133 프로그래밍언어에는 자모순 세분 별법이 적용된다. 특정 프로그래밍언어에 관한 자료를 **언어명의 자모순**으로 세분하여 구분할 수 있다.

④ O: 005.44 컴퓨터운영체제에는 자모순 세분 별법이 적용된다. 특정 운영체제에 관한 자료를 **운영체제명의 자모순**으로 세분하여 구분할 수 있다.

NoteBase

문 6. 랑가나단(Ranganathan)은 분류작업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랑가나단이 구분한 분류작업의 3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색인 단계(indexing plane)

② 아이디어 단계(idea plane)

③ 언어 단계(verbal plane)

④ 기호 단계(notational plane)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랑가나단의 분류작업 3단계는 **개념·언어·기호**를 구분한 것이며, 색인 단계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

공통 해설

랑가나단은 분류작업을 주제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를 언어와 기호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구분했다. 아이디어 단계(idea plane)에서는 문헌의 주제를 분석하여 구성 개념과 그 관계를 파악한다. 언어 단계(verbal plane)에서는 파악한 개념을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기호 단계(notational plane)에서는 이를 숫자·문자 등의 분류기호로 나타낸다. 즉, **개념 자체의 분석, 자연언어에 의한 표현, 분류기호에 의한 표현**이라는 구분이다.

이 구분에 해당하는 명칭은 아이디어 단계·언어 단계·기호 단계이며, **색인 단계(indexing plane)는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7.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의 상위요소 중 하나인 “physicalDescription”은 DC(Dublin Core)의 어느 요소에 해당하는가?

① Type
② Rights
③ Description
④ Format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MODS의 physicalDescription은 자료의 **물리적 특성과 파일 형식**을 기술하므로, DC에서 같은 정보를 나타내는 **Format**에 대응한다.

공통 해설

MODS의 physicalDescription은 자료의 물리적 특성을 기술하는 하위요소를 묶는 상위요소이다. form에는 자료의 물리적 형태나 매체를, internetMediaType에는 전자 파일 형식을, extent에는 분량이나 크기 등을 기록한다.

DC의 Format은 **파일 형식·물리적 매체·크기**를 나타내므로 physicalDescription과 대응한다. 예를 들어 전자자료의 'image/jpeg'라는 파일 형식은 MODS에서는 physicalDescription 아래 internetMediaType에 기록하고, DC로 변환할 때는 Format에 옮긴다. 이 대응은 요소 이름에 'Description'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정보를 기술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8.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통합서지용 형식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필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490 필드는 총서표제를 위한 총서사항을 기술하지만, 총서부출표목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② 336 필드는 어떤 저작이 표현된 내용의 형식을 나타낸다. 자원의 일반적인 내용유형을 나타내는 리더/08(제어유형)과 함께 사용된다.

③ 321 필드는 해당 자료의 이전 간행빈도를 기술한다. 이 필드는 310 필드에 현재 간행빈도가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785 필드는 해당 자료의 직접적인 후속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둘 이상의 후속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785 필드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의 '리더/08(제어유형)'은 **리더/06(레코드 유형)**으로 고쳐야 한다. 336 필드는 저작이 표현된 내용의 형식을 나타내며, 자원의 일반적인 내용유형을 나타내는 리더/06과 함께 사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490 필드는 자료에 나타난 총서표제 등의 총서사항을 기술한다. 총서명으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총서부출표목은 800–830 필드**에 별도로 기술한다. 따라서 490 필드 자체가 총서부출표목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② X: 336 필드가 저작이 표현된 내용의 형식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맞다. 그러나 함께 사용하는 것은 **리더/06(레코드 유형)**이다. 리더/06은 문자자료·지도자료·녹음자료 등 자원의 일반적인 내용유형을 부호로 구분하고, 336 필드는 내용유형을 용어나 부호로 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리더/08은 문서기술규칙에 따른 제어 여부 등 제어유형을 나타내므로 내용유형을 나타내는 자리와 구별해야 한다.

③ O: 321 필드는 이전 간행빈도, 310 필드는 현재 간행빈도를 기술한다. 321 필드는 **310 필드에 현재 간행빈도가 기술된 경우에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월간에서 계간으로 바뀌었다면 310에 현재의 계간을, 321에 이전의 월간을 기술한다.

④ O: 785 필드는 해당 자료를 직접 이어받은 **후속자료의 정보**를 기술하는 후속저록 필드이다. 후속자료가 둘 이상이면 각 자료의 정보를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도록 785 필드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NoteBase

문 9. 다음 중 한국의 목록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박봉석의 동서편목규칙은 동양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 기술방식인 서명기본저록을 기반으로 하였다.
ㄴ. 한은도서편목법은 동양서와 서양서 공용이며 저자명기본저록방식을 채택하였다.
ㄷ. KCR 초판은 국제표준인 ISBD의 기술방식을 도입하여 서지기술의 표준화를 기하였다.
ㄹ. KCR 제3판은 동양서와 서양서 공용의 목록규칙으로서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을 수용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ㄷ의 ISBD 도입은 KCR 초판이 아니라 **제3판의 특징**이다. 제3판은 자료의 서지사항을 적는 기술부와 검색의 실마리가 되는 표목부를 분리하는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을 수용하였다.

보기별 해설

ㄱ. O: 박봉석의 동서편목규칙은 동양서를 대상으로 하며, **서명기본저록**을 채택하였다. 책의 제목인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삼는 방식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목록 기술방식을 계승하였다.

ㄴ. O: 한은도서편목법은 동양서와 서양서에 함께 적용하는 규칙이며, **저자명기본저록**을 채택하였다. 서명을 기본표목으로 삼은 동서편목규칙과 달리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삼았다.

ㄷ. X: **ISBD를 도입한 것은 KCR 제3판**이다. 1964년에 발행된 KCR 초판은 저자명기본저록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국제표준서지기술인 ISBD에 준하여 서지사항의 기술을 표준화한 것은 1983년에 발행된 제3판의 특징이므로, 초판에 관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

ㄹ. O: KCR 제3판은 **동양서와 서양서 공용**의 목록규칙이며, 서지기술단위저록방식을 수용하였다. 이는 서명·저자표시·발행사항 등 자료를 식별하는 기술부와 검색의 실마리가 되는 표목부를 각각 독립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저자명을 기본표목으로 정하여 기술부와 결합하는 저자명기본저록방식과 구별된다.

옳은 보기는 ㄱ, ㄴ, ㄹ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통합서지용에서 채용하고 있는 국제표준코드 가운데 024 기타 표준부호에 기술하는 필드를 모두 고르면?

ㄱ. UPC - 세계상품부호
ㄴ. ISMN - 국제표준악보번호
ㄷ. ISRC - 국제표준녹음자료부호
ㄹ. STRN - 표준기술보고서번호
ㅁ. 형태를 알 수 없는 표준부호

① ㄱ, ㄴ, ㄷ, ㅁ
② ㄱ, ㄴ, ㄹ, ㅁ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ㄹ의 표준기술보고서번호(STRN)는 기타 표준부호에 묶지 않고 **027 필드**에 따로 기록한다.
UPC·ISMN·ISRC와 형태를 알 수 없는 표준부호는 024 필드에 기록하며, 제1지시기호로 유형을 구분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024 '기타 표준부호' 필드는 자료 발행 시 부여된 표준부호 중 020(국제표준도서번호), 022(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027(표준기술보고서번호)에 기록하는 것 이외의 표준부호를 기록한다. 024 필드의 제1지시기호는 표준부호의 유형을 나타낸다.

ㄱ. UPC - 세계상품부호: 024 필드에 기록한다. 세계상품부호를 나타내는 **제1지시기호 1**을 사용한다.

ㄴ. ISMN - 국제표준악보번호: 024 필드에 기록한다. 악보에 부여된 표준번호의 유형을 **제1지시기호 2**로 표시한다.

ㄷ. ISRC - 국제표준녹음자료부호: 024 필드에 기록한다. 녹음자료의 표준부호 유형을 나타내는 **제1지시기호 0**을 사용한다.

ㄹ. STRN - 표준기술보고서번호: **027 '표준기술보고서번호' 필드**에 기록한다. 전용 필드가 있으므로 024 필드에 기록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ㅁ. 형태를 알 수 없는 표준부호: 024 필드에 기록하며, **제1지시기호 8**을 사용한다. 부호의 유형을 알 수 없다는 뜻이지 표준부호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024 필드에 기록하는 항목은 ㄱ·ㄴ·ㄷ·ㅁ이며, ①의 조합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다음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레코드 중 리더(leader)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이 가운데, 05 자리(레코드 상태)의 ‘p’가 나타내는 것은?

0	1	0	8	2	p	a	m		a	2	2	0	0	3	0	1		c		4	5	0	0

① 기존 레코드의 입력수준을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

② CIP 레코드를 완전수준으로 올린 레코드

③ 수정된 레코드

④ 신규 레코드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리더 05 자리의 'p'는 **발행전수준의 CIP 레코드를 완전수준으로 올렸음**을 나타낸다. 단순한 데이터 수정이 아니라, 출판예정도서목록으로 작성된 레코드의 입력수준을 높인 경우이다.

공통 해설

리더의 자리는 00부터 세므로, 제시된 '01082' 다음의 여섯 번째 문자 'p'가 05 자리의 레코드 상태 부호이다. 이 자리는 해당 레코드의 처리 상태와 기존 레코드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p'는 **CIP 레코드를 완전수준으로 올린 경우**에 사용하는 부호이다. CIP는 출판예정도서목록으로, 이에 따라 작성된 레코드는 리더 17 자리의 입력수준이 '8', 즉 발행전수준이다. 이 레코드를 완전수준으로 보완하면 05 자리에 'p'를 기록한다. 핵심은 출발점이 CIP 레코드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존 레코드의 입력수준 상향, 입력수준을 유지한 데이터 수정, 신규 레코드 입력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2. 다음 중 CC(Colon Classification)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7판은 본표는 발행되었으나 색인 부분은 발행되지 못하여 미완성 상태이다.

② 기본 범주 중 S는 지리(공간) 구분을 의미하며 거의 모든 주제에 적용할 수 있고 dot(.)으로 연결한다.

③ 기본주제의 배치 원리는 암페르(A.M. Ampere)의 학문 배열을 따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순으로 배정하였다.

④ 기본 범주 중 M은 주제를 형성하는 물질의 주요 소재나 사물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패싯기호로서 semicolon(;) 기호를 사용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배열 순서를 잘못 제시했다. CC의 기본주제는 **자연과학 → 인문과학 → 사회과학**의 순서로 배치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CC 제7판은 1987년에 본표가 발행되었으나 **색인이 함께 발행되지 않아** 미완성 상태로 나왔다. 본표는 주제와 분류기호를 체계적으로 배열한 부분이고, 색인은 주제어를 통해 본표의 해당 위치를 찾도록 돕는 부분이다.

② O: S는 Space로, 주제의 지리적·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며 **연결기호는 점(.)**이다. 공간 구분은 거의 모든 주제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농업'에서 '한국'은 농업이라는 주제가 다루어지는 공간에 해당한다.

③ X: CC의 기본주제는 **자연과학 → 인문과학 → 사회과학**의 순서로 배치된다. 선지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자연과학을 맨 뒤에 놓았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④ O: M은 Matter로, 주제를 구성하는 물질이나 소재를 나타내며 **연결기호는 세미콜론(;)**이다. 목재 가구의 '목재'나 금화의 '금'처럼 대상의 재료에 해당하는 요소를 나타낼 수 있다.

NoteBase

문 13. 다음의 자료들을 듀이십진분류법(DDC) 제23판으로 분류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과학총서 - 308

② 자연과학논집(계간) - 505

③ 영국문학전집 - 820.8

④ 문학이론 - 801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사회과학총서는 총서라는 형식만으로 308에 분류하지 않고, 내용이 속하는 주제인 **300(사회과학)**에 분류한다. DDC 제23판에서 **308은 미사용 번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특정 주제를 다루는 총서는 그 주제에 분류한다. 사회과학 전반의 저작을 모은 사회과학총서는 **300(사회과학)**에 분류하며, 308은 DDC 제23판에서 미사용 번호이므로 부여할 수 없다.

② O: 505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속간행물**을 분류하는 번호이다. 자연과학논집은 계간, 즉 3개월마다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므로 505에 분류한다.

③ O: 820은 영문학에 해당하며, 820.8은 **여러 문학형식의 작품을 모은 전집·선집**에 해당한다. 특정 문학형식으로 한정되지 않은 영국문학전집은 820.8에 분류한다. 시집이나 소설집처럼 문학형식이 한정되면 해당 형식의 분류번호를 따른다.

④ O: 801은 문학의 **철학과 이론**을 다루는 번호이다. 문학의 본질·성격·원리 등을 설명하는 문학이론은 작품 자체를 모은 전집과 구별하여 801에 분류한다.

NoteBase

문 14. IFLA의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FRBR)'에 제시된 제1집단 개체의 정의를 근거로 할 때, 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창비 출판사에서 2007년 단행본으로 발행, 같은 해에 전자책으로 발행
· 「채식주의자」는 Deborah Smith에 의해 번역되어 2015년 Portobello Books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발행, 같은 해에 전자책으로 발행
· 임우성 감독은 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 '채식주의자'의 각본을 쓰고 2010년 영화로 상영, 같은 해에 DVD로 출시

① 전자책으로 발행된 영문판 '채식주의자'는 표현형에 해당되는 개체이다.
② 한강의 '채식주의자' 한글 원본과 임우성 감독의 영화 '채식주의자' 각본은 서로 다른 저작이다.
③ DVD로 발행된 영화 '채식주의자'는 구현형에 해당되는 개체이다.
④ Portobello Books에서 출간한 영문판 단행본은 구현형에 해당되는 개체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전자책으로 발행된 영문판'은 **구현형**에 해당한다. 영어로 번역된 텍스트 자체는 표현형이고, 이를 전자책이라는 발행 형태로 담아낸 것은 구현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FRBR에서 저작은 독립적인 지적·예술적 창작물, 표현형은 그 저작을 언어·소리·영상 등으로 실현한 내용, 구현형은 그 표현형을 특정 매체와 발행 형태로 담아낸 것이다.

① X: Deborah Smith가 번역한 영어 텍스트 자체는 소설 '채식주의자'의 표현형이다. 그러나 선지는 그 텍스트가 **전자책으로 발행된 형태**를 가리키므로 '표현형'을 '구현형'으로 고쳐야 한다. 같은 영어 텍스트를 담더라도 인쇄 단행본과 전자책은 서로 다른 구현형이다.

② O: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 각본을 쓰는 것은 단순한 언어 번역과 달리 **독립적인 지적·예술적 창작이 수반되는 각색**이다. 따라서 한강의 원작 소설과 임우성 감독의 영화 각본은 서로 다른 저작으로 본다.

③ O: 영화의 영상·소리로 실현된 내용을 DVD에 담아 출시한 것은 **표현형을 특정 매체로 구현**한 것이다. 따라서 사례의 DVD 발행본은 구현형에 해당한다.

④ O: Deborah Smith의 영어 번역 텍스트는 표현형이고, 이를 Portobello Books가 2015년에 **인쇄 단행본으로 출간한 발행본**은 구현형이다. 번역된 내용 자체와 출판사·매체·발행 형태가 정해진 출판물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문 15. 다음 한국십진분류법(KDC) 제6판의 강목(division) 가운데 기호와 주제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한 것은?

① 340 - 정치학, 750 - 독일어

② 250 - 천도교, 670 - 음악

③ 170 - 논리학, 560 - 화학공학

④ 020 - 문헌정보학, 430 - 화학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560 - 화학공학'이 잘못된 연결이다. **560은 전기공학·통신공학·전자공학**이며, **화학공학은 570**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340은 사회과학(300)에 속하는 정치학이며, 750은 언어(700)에 속하는 독일어이다. 두 기호 모두 제시된 주제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② O: 250은 종교(200)에 속하는 천도교이며, 670은 예술(600)에 속하는 음악이다. 두 연결 모두 KDC 제6판의 강목에 부합한다.

③ X: 170은 논리학으로 바르게 연결되어 있으나, 560의 주제는 **전기공학·통신공학·전자공학**이다. 화학공학의 기호는 **570**이므로 '560 - 화학공학'을 '570 - 화학공학'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020은 총류(000)에 속하는 문헌정보학이며, 430은 자연과학(400)에 속하는 화학이다. **화학(430)과 화학공학(570)**은 서로 다른 강목이다.

NoteBase

문 16. 다음 중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을 적용하여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통합서지용을 작성할 때 사용하지 않는 필드로만 올바르게 묶여진 것은?

① 1XX, 210, 240

② 730, 773, 830

③ 1XX, 240, 243, 730, 830

④ 210, 240, 243, 700, 730, 83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KCR 제4판은 **기본표목과 통일표목을 채택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므로, 기본표목 및 통일표제 관련 필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NoteBase

구성 요소별 해설

KORMARC는 서지정보를 어떤 필드에 기록하는지를 정한 형식이고, KCR은 그 정보를 기술하는 목록규칙이다. 따라서 KORMARC에 정의된 필드라도 적용하는 목록규칙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KCR 제4판은 특정 접근점을 기본표목으로 선정하거나 특정 형식을 통일표목으로 삼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다.

1XX: 개인명(100), 단체명(110), 회의명(111), 통일표제(130)를 **기본표목**으로 기록하는 필드군이다. KCR 제4판은 기본표목을 선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10: 색인이나 식별을 위한 **축약표제**를 기록한다. 표제를 짧게 나타내는 것이며, 여러 표제 중 표준형식을 선정하는 통일표제와는 다르다. 따라서 KCR 제4판을 적용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240: 한 저작이 서로 다른 표제로 출판되어 있을 때 그 저작의 저록을 모으기 위한 통일표제를 기록한다. KCR 제4판은 **통일표목을 채택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43: 같은 저자의 여러 저작을 모으기 위한 **종합통일표제**를 기록한다. 예를 들어 한 저자의 작품들을 모으는 표제로 소설집이나 전집 등의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기본표목 및 통일표목을 채택하지 않는 KCR 제4판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700: 개인명을 검색 접근점으로 제공하는 부출표목 필드이다. KCR 제4판에서 **기본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개인명 접근점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저자 등의 개인명 접근점을 기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730: 통일표제를 부출표목으로 기록하는 필드이다. KCR 제4판의 통일표목을 채택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필드로 분류된다.

773: 논문이 실린 학술지처럼 해당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기본자료의 서지정보**를 기록하는 기본자료저록 필드이다. 여기서 기본자료는 자료를 담고 있는 상위 자료를 뜻하며, 대표 접근점을 뜻하는 기본표목과는 다르다. KCR 제4판에서도 자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830: 총서의 통일표제를 부출표목으로 기록하는 필드이다. 총서에 관한 정보를 기술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총서의 통일표제를 접근점으로 선정**하는 데 쓰이므로 KCR 제4판의 원칙상 사용하지 않는 필드로 분류된다.

사용하지 않는 필드로 묶이는 것은 1XX·240·243·730·830으로, ③의 구성과 일치한다. ①에는 사용 가능한 210, ②에는 773, ④에는 210과 7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된다.

NoteBase

문 17. 다음 중 분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인과관계는 원인이 된 주제에 분류한다.
ㄴ. 셋 이상의 주제는 그 주제들 중 가장 많이 다룬 주제에 분류한다.
ㄷ. 원저작의 번역서나 비평서는 원저작과 따로 분류한다.
ㄹ. 원저작의 번안이나 각색은 번안가나 각색자의 작품으로 분류한다.
ㅁ. 언어 학습용 대역서는 원저작과 함께 분류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ㅁ
③ ㄴ, ㄷ, ㄹ, ㅁ
④ ㄹ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번안·각색은 원작의 내용이나 표현 형식을 바꾸어 새롭게 구성한 것이므로 **번안가나 각색자의 작품**으로 분류한다. 원저작과 같은 곳에 분류하는 일반적인 번역서·비평서와 구별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X: 두 주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룬 자료는 원인이 된 주제가 아니라 **결과가 된 주제**에 분류한다. 한 주제가 다른 주제에 미친 영향을 다룬 경우에도 영향을 받은 주제를 기준으로 한다.

ㄴ. X: 셋 이상의 주제를 동등하게 다루고 어느 하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주제들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 주제**에 분류한다. 특정 주제가 명백히 중심인 경우에는 그 주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셋 이상의 주제를 다룬 자료를 언제나 분량이 가장 많은 주제에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ㄷ. X: 특정 원저작의 번역서나 비평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과 같은 곳**에 분류한다. 번역은 원저작의 내용을 다른 언어로 옮긴 것이고, 비평은 해당 원저작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로 관련된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다.

ㄹ. O: 번안·각색은 원작의 배경·내용이나 표현 형식 등을 바꾸어 새롭게 구성한 작품이다. 따라서 원저작에 그대로 따르지 않고 **번안가나 각색자의 작품**으로 보아 그 작품에 맞게 분류한다.

ㅁ. X: 언어 학습용 대역서는 원문과 번역문을 나란히 실어 언어를 익히도록 만든 자료이다. 작품 감상보다 언어 학습이 목적이므로, 원저작과 함께 분류하지 않고 **학습하려는 언어의 독본**에 분류한다.

옳은 보기는 ㄹ만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④이다.

NoteBase

문 18. 다음은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과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 통합서지용으로 작성한 레코드들의 일부이다. 첫 번째 레코드를 참고하여 두 번째 레코드의 괄호 안에 들어갈 필드 번호로 옳은 것은? (단, 지시기호와 띄어쓰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레코드 1
245 ▼ aBulletin of the Special Astrophysical Observatory -- North Caucasus
765 ▼ tAstrofizicheskie issledovaniia ▼ w (DLC)b/b/b/78648457 ▼ w (OCoLC)4798581

레코드 2
245 ▼ aAstrofizicheskie issledovaniia
( ) ▼ aAstrofizicheskie issledovaniia. English. ▼ tBulletin of the Special Astrophysical Observatory–North Caucasus
▼ x0190–2709 ▼ w (DLC)86649325 ▼ w (OCoLC)4698159

① 762
② 767
③ 772
④ 776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레코드 1의 765는 번역본에서 원저를 연결한다. 레코드 2는 반대로 원저에서 영어 번역본을 연결하므로 **767(번역저록)**을 사용한다.

NoteBase

공통 해설

KORMARC에서 원저와 번역본을 연결하는 필드는 현재 기술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정한다. **765(원저저록)**는 번역본의 레코드에 원저 정보를 기록할 때, **767(번역저록)**은 원저의 레코드에 번역본 정보를 기록할 때 사용한다. 같은 두 자료를 연결하더라도 연결 방향에 따라 필드가 달라진다.

레코드 1의 245에 기록된 자료는 'Bulletin of the Special Astrophysical Observatory -- North Caucasus'이다. 이 레코드의 765에 'Astrofizicheskie issledovaniia'가 있으므로, 앞의 자료는 번역본이고 뒤의 자료는 그 원저임을 알 수 있다.

레코드 2의 245에는 그 원저인 'Astrofizicheskie issledovaniia'가 기록되어 있다. 괄호 뒤의 'English'와 영어 표제는 연결하려는 자료가 레코드 1의 영어 번역본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괄호 안에는 **원저에서 번역본을 연결하는 767**을 넣는다.

NoteBase

문 19. 다음 중 커터-샌본 저자기호표(Cutter-Sanborn Three-Figure Author Tabl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자명 중 Mc, Mac, M'으로 시작되는 저자명은 자료의 표기에 관계없이 모두 Mc으로 처리하여 기호를 부여한다.

② 숫자 '0'(zero)은 알파벳 대문자 'O'와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③ 해당하는 번호가 없는 저자명의 경우에는 바로 앞의 번호를 채택하여 기재한다.

④ 전기자료는 그 대상 인물의 이름을 기호화하고 저자명을 저작기호로 기재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Mc, Mac, M'으로 시작하는 저자명은 실제 표기와 관계없이 모두 **Mac으로 간주**하여 기호를 부여한다. ①의 '모두 Mc으로 처리'는 '모두 Mac으로 처리'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Mc, Mac, M'으로 시작하는 저자명은 모두 **Mac으로 표기된 것처럼** 처리하여 저자기호표에서 찾는다. 따라서 통일하는 기준은 Mc이 아니라 Mac이다.

② O: 숫자 0은 알파벳 대문자 O와 모양이 비슷하여 기호를 읽을 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저자기호표의 숫자에는 **0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O: 저자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항목이 표에 없으면, 그 저자명이 들어갈 **알파벳순 위치의 바로 앞 항목**에 부여된 번호를 채택한다. 뒤 항목의 번호를 쓰거나 번호에서 단순히 1을 빼는 방식이 아니다.

④ O: 같은 인물을 다룬 전기자료가 함께 배열되도록 **전기의 대상 인물 이름**으로 저자기호를 부여한다. 각각의 전기를 구별하는 저작기호는 서명 대신 전기를 쓴 저자의 성에서 취하며, 보통 성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붙인다.

NoteBase

문 20. METS(Metadata Encoding and Transmission Standard)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자원에 대한 구조적, 기술적, 관리적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XML 스키마 기반의 인코딩 표준이며, 총 7개의 섹션(seven major section)으로 구성된다. 다음 중 METS의 7개 섹션(section)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Administrative Metadata

② Behavior

③ File Section

④ Structural Metadata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구조적 메타데이터를 표현하는 METS 섹션의 명칭은 **Structural Map(구조맵)**이다. 'Structural Metadata'는 메타데이터의 유형을 가리키며, 7개 섹션의 명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통 해설

METS의 7개 섹션은 METS 헤더(METS Header), 기술 메타데이터(Descriptive Metadata), 관리 메타데이터(Administrative Metadata), 파일 섹션(File Section), 구조맵(Structural Map), 구조 링크(Structural Links), 행위(Behavior)이다. 이 구성 목록에 Administrative Metadata, Behavior, File Section은 포함되지만, Structural Metadata라는 섹션은 없다.

여기서 **메타데이터의 유형과 섹션의 명칭**을 구별해야 한다. 구조적 메타데이터는 디지털 자원의 구성 부분과 그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고, 구조맵은 그러한 구조를 표현하는 섹션이다. 예를 들어 전자책의 장·페이지 계층을 나타내고 각 부분을 해당 내용 파일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Structural Metadata'가 METS에서 다루는 정보라는 사실과, 그것이 독립된 섹션명이라는 주장은 다르다.

NoteBase